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Sault Saintmarl
파견대학	Algoma University	기간	01.21.~02.11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은 수세인트마리에 라는 작은 도시에 위치해 있는 알고마 대학교 이었습니다. 차로 30분 정도 가면 도착할 만큼 미국 미시간주와 가깝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외국인들을 접할 수 있었고 여러 문화를 간접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눈이 항상 쌓여 있을 정도로 많이 내렸지만 공기가 너무 맑고 풍경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모두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수업	동아대학교10명과 순천향대학교14명 총 24명의 학생들이 레벨테스트를 보고 분반으로 나누어 수업하였습니다. Speaking, Listening, Grammar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Grammar은 피피티를 보면서 나눠주시는 프린트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수업이든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밝으시며 활발하고 재밌게 수업을 진행해주셔서 수업 도중에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았고 Listening과 Speaking수업에서 게임 위주의 활동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문법을 틀리게 말할 때 마다 고쳐주셨으며 과제는 문제를 내주시면 풀어 오거나 토론준비를 해오는 것 이었습니다. 분반 없이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Critical Thinking과 Teched라는 수업 이었으며 Critical Thinking은 캐나다의 문화와 알고마 대학교 전통에 대해서 배우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Teched수업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캐나다에서 겪었던 것들 중에 자신이 기억에 남았던 것들을 작성하면서 사진보고서처럼 Memory book을 만드는 것입니다.
Activity	Sleigh Ride, Dog sledding- 말과 개들이 끌어주는 썰매를 타는 활동인데 말썰매를 탈 때는 15명씩 탔고 개썰매를 탈 때는 2명씩 탔습니다. 신나고 재밌었던 활동 이었습니다. Snow shoeing- 눈 위를 걷는 활동입니다. Night Skiing- 야간 스키를 타는 활동인데 처음 스키를 타는 사람들도 잘 탈 수 있게 선생님들이 도와줍니다. Mockingbird Hill Farm, Alpaca Farm- 염소들과 고양이 닭 등 다양한 동물을 구경하고 먹이를 주는 활동, 알파카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먹이를 보면 달려들어서 처음에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Volunteer-초등학교와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주는 활동을 했고 노인복지관에서는 꽃으로 목걸이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하키게임을 보러가거나 Downtown을 구경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기온은 한국과 비슷하게 추우며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높게 쌓이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옷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운동화 보다는 부추를 가져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안전한 동네이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6시가 넘으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0) 외부 숙소() 기타() 저는 부부와 일본인 유학생이 사는 집에 배정받았는데 다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홈스테이 아빠가 장난기가 많으셨고 같이 저녁식사를 할 때 항상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방도 깨끗하고 따뜻했으며 저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0) 외부식당 () 기타() 저는 대부분 저녁을 홈스테이에서 먹었습니다. 홈스테이 엄마와 아빠 그리고 일본인 유학생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3주 동안 다 다른 음식으로 해주셨고 점심도 매일 준비해주셨습니다.
교통	집에서 학교를 갈 때는 홈스테이 아빠가 차로 데려다 준적이 많았고 차로는 15분정도 걸렸으며 버스를 이용할 때는 40분에서50분정도 걸렸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1,806,100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500,000	화장품, 기념품(메이플 시럽, 쿠키 등등)
식비	100,000	근처 레스토랑, 머핀 등등

합계	2,406,100	

5. 출국 전 준비사항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썰매타기, 스노우슈잉, 스키 등 눈밭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추나 방수가 되는 신발은 꼭 준비해 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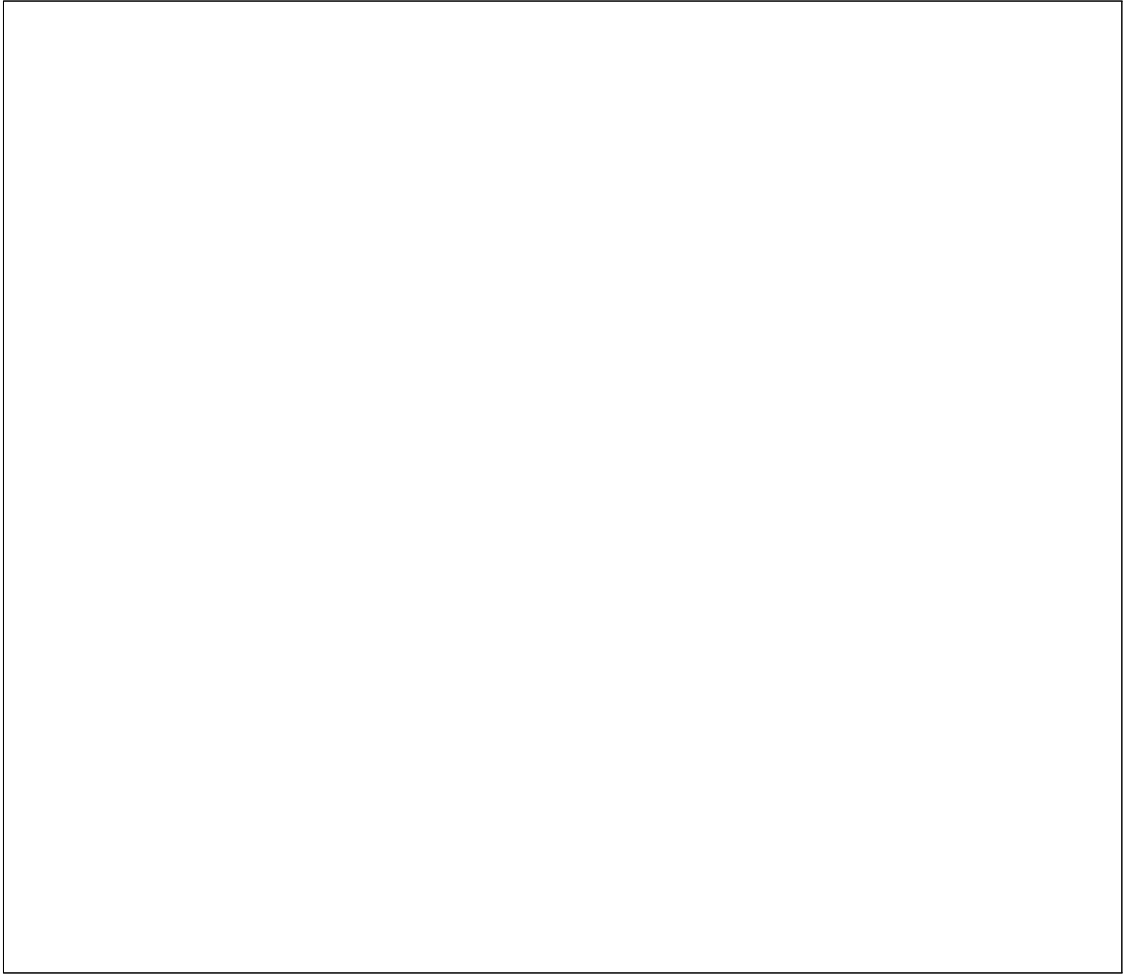
3주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놀러가기도 하고 근처 레스토랑집도 가보는 것을 추천해요.

현지 음식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 라면이나 고추장 밥 등을 준비해가는 것도 좋아요.

홈스테이 선물로 화장품이랑 과자를 사갔는데 좋아하셨어요. 조금한 선물을 준비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비록 짧은 기간인 3주지만 너무 소중한 인연을 맺기도 했고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경험했습니다. 캐나다의 작은 도시이지만 평화롭고 모두가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하셨습니다. 특히 도로가 없는 길에서 사람들이 먼저 지나갈 때 까지 차와 버스가 기다려 주었고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홈스테이를 하면서 홈스테이 엄마와 아빠가 친 딸처럼 대해주시고 일본인 유학생도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홈스테이 엄마와 아빠는 취미가 있어서 매주 목요일 마다 엄마는 뜨개질 학원들 갔고 아빠는 복싱을 배우러 가셨는데 일도 하시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나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하고 일도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은 정말 넓다고 느끼게 되었으며 열린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토익, 토플을 공부하면서 내년에 랑가라 대학교나 알고마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단기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꼭 가라고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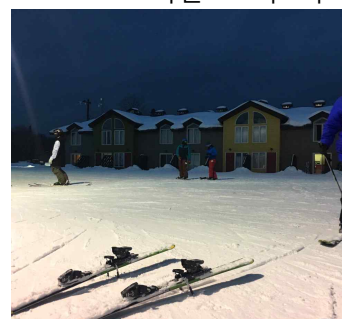
홈파티 하기



BON SOO 축제 구경하기



미국에서 썰매타기



야간 스키 타기